

목포 공무원 학습동아리 '시정혁신 브레인' 역할

목포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10개 동아리가 최근 한 해 동안 연구한 결과를 선보이는 '2013 공무원 학습연구동아리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정 혁신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는 윤진보 부시장을 주재로 10개팀 동아리 회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청 회의실에서 실시됐으며, 목포시 정보화 업그레이드를 주도하는 '손에 잡히는 파워포인트' 동아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손에 잡히는 파워포인트' 동아리는 17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파워포인트 교육을 매주 한 번씩 실시하면서 실력을 쌓아왔다. 올해 활동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

10개팀 150여명 발표대회...연구 매진 시정발전 기여 정보화 업그레이드 '손에 잡히는 파워포인트' 최우수

'전남 관광컨퍼런스 관광상품 설명회' 등 목포시 주요 시정홍보 자료를 다수 제작하는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우수상에는 시민 건강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활발한 활동을 보인 '레드 서클(Red Circle)' 동아리가 수상했다. 'Red Circle'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매달 소식지를 발간 배부하고 있다.

희망상에는 유달산의 보존과 이용자 편의 증진 방안을 연구한 '자연과 사람들' 그리고 지역 '섬'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발길따라 머무는 사람들' 등 2개 동아리가 수상했다.

이 밖에도 사진을 활용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사진화합',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골드피쉬', 사회복지직으로 구성된 '임파워먼트', 목포 역사이야기가 있는 녹색여행을 연

구한 '생활 속의 녹색실천', 창의적 리더 육성을 위한 '열정스피치', 예방 목포항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행복한 동행, 문화기행' 등이 이번 발표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윤진보 부시장은 "각 동아리별로 한 해동안 노력하고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어 너무나 뿌듯하다"며 "내년에는 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과제연구에 매진해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 공무원 학습연구동아리는 올해로 9년째를 맞고 있으며, 시는 지난해까지는 각 동아리별로 100만원, 올해부터는 각각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신안 흑산도에 어린 해삼 46만미 방류

신안군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23일 흑산도 진리 외 10개 지선에 어린 해삼 46만미를 방류했다. <사진>

이번에 방류할 어린 해삼은 수산종묘 배양장에서 양성된 체중 약 1~7g의 건강한 어린해삼으로, 해양수산부와 학원의 질병검사 등 사업지침에 따라 적합 여부가 확인된 종묘이다.

해삼은 바다의 인삼으로 불릴 만큼 기력회복에 좋으며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며, 특히 칼슘과 철분이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회로, 중국에서는 탕으로 주로 즐긴다. 가을부터 맛이 들기 시작하여 동지 전후가 가장 맛이

좋을 때다. 이번 어린해삼 방류지역 흑산도 해조류가 풍부하고, 저질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해삼이 포식자를 피해 숨을 수 있는 장소가 많아 성장과 서식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고소득 품종인 해삼방류는 일본 원전사태로 인한 수산물 가격 하락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방류를 끝으로 올해 4종으로 주로 즐긴다. 가을부터 맛이 들기 시작하여 동지 전후가 가장 맛이

신안군, 내년 해양수산사업 공모 31일까지 신청

신안군은 24일 "2014년도에 추진할 해양수산사업 중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을 반영해 조기 발주 가능한 공모사업에 대해 우선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는 공모 사업은 고희효 어선 유통질감시설, 소형저온저장고,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산지자공시설 등 총 12개로, 사

업비는 모두 합쳐 73억 72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신안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실제 거주하는 어업인이나 어촌계, 법인인 경우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기한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수산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반부패경쟁력 실적 평가

목포해양청 '최우수'

목포지방해양청(청장 남광률)은 24일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2013년도 반부패경쟁력 실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 출범한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 '깨끗한 바다(Clean Ocean) 실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8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시스템 구축, 부패방지를 위한 취약분야 제도개선 추진, 청렴교육 및 청렴 환경 조성 등을 심의해 우수 기관 및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청만청은 자체 반부패 청렴 대책을 통해, 해양수산부 18개 소속기관 중 반부패경쟁력 실적평가에서 1위의 영예를 안았다. 부상으로 우수기관과 공로자에 대한 표창,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상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목포=김준성기자 kjs0533@



신안 북항선착장 대합실 개소

신안군은 지난 23일 오전 북항선착장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비금·도초·인좌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합실 1동, 매표소 1동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내년부터 함평에도 도시가스 공급

내년 말부터 함평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된다. 함평군은 24일 군청 회의실에서 안병호 함평군수, 정영준 해양도시가스 대표이사, 참석 한 가운데 함평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150억원에 들어 내년 2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부터 함평읍내 공동주택과 동함평산단, 학교농공단지 등에 공급된다.

해양도시가스는 22km에 달하는 배관공사를 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명양농공단지, 무지개마을, 대신제분 등에 공급되며 2018년까지 함평읍내 상가와 일반 주택에도 공급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내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목

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화순, 영암, 무안, 장성, 영광, 담양, 해남 등 12개 시·군에 공급되고 있다.

오는 2016년까지 완도, 진도, 신안 등 도서지역을 제외한 함평, 곡성, 구례, 강진, 장흥, 보성, 고희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정읍 교통체증 사라진다

신태인 연결 국도 29호선 4차로 등 잇단 개통

정읍~신태인 간(국도29호선) 4차로 등이 개통하는 등 정읍시 내·외의 도로망이 갖춰지면서 정읍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국도 29호선 응계동에서 영원면에 이르는 정읍~신태인 1공구가 이날 오후 2시부터 개통됐다. 또 오는 31일부터는 도심을 통과하던 국도 1호선을 도심 외곽으로 우회하도록 하는 신월동과 금봉동을 잇는 국도대체우회도로(삼산~금봉)가 개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행시간 단축 및 교통체증 해소 등 정읍을 비롯한 인근 지역 교통환경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응계동에서 영원면에 이르는 정

읍~신태인 1공구사업은 총 8.9km 구간의 구불구불한 선형을 개선하고 확장한 사업이다.

지난 2005년 12월 사업을 시작해 총사업비 791억원을 투입하여 교량 8개소(355m), 터널 2개소 570m 및 입체교차로 2개소를 설치했다. 31일 개통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은 시내를 통과하던 국도 1호선 신월동~송산동 구간(3.0km)을 도심외곽으로 우회확장하고 국도 29호선 삼산(송산동)~금봉동 구간(1.85km)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5년 사업을 시작해 총사업비 484억원이 투입됐으며 교량 5개소와 터널 1개소, 교차로 3개소가 설치됐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청소년 3대3 농구대회 성료

지난 22일 정읍시 실내체육관에서 제15회 정읍·고창·부안 청소년 3대3 농구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전주지방경찰청 정읍지청이 후원하고 법무부 범죄예방 정읍지부협의회가 주관했으며, 각 시군에서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중등부 2팀, 고등부 4팀(시군별 6팀) 총 18개팀 72명(팀당 4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kwangju.co.kr

올해 추가로 조성된 주천·운봉·아염·인월·산내 지역은 해발 300~700m로 오미자가 자라는데 최적의 생육 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곳에서 생산된 오미자는 과육이 단단하고 향이 뛰어나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100살 된 '고창'

郡, 내년 다양한 행사 계획

고창군이라는 이름이 생긴 지 내년이면 꼭 100년이 된다. 고창군은 삼한 시대 마한의 여러 소국 가운데 하나인 모로비리국에 속했다.

삼국시대 백제 때 도량부리현이라 불렀으며 신라 경덕왕 16년(757년)에 고창현으로 되면서 '고창'이란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조선 시대 고종 32년(1894년) 갑오경장 때 현이 군으로 승격됐으며 일제강점기인 1914년 3월 1일 부·군 통폐합령에 따라 고창군과 인근의 무장군, 흥덕군이 고창군으로 통합됐다. 따라서 내년 3월 1일이 고창군이 생긴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고창군은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열 계획이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 개막

눈썰매 등 체험프로그램 다채

제3회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가 24일 남원시 운봉읍 허브밸리에서 개막됐다. <사진>

'겨울·눈꽃, 동심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눈꽃축제는 내년 2월 9일까지 지리산 바래봉과 허브밸리 일대에서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눈썰매·얼음썰매 타기, 눈 조각 전시, 눈싸움 대회, 바래봉 눈꽃 등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린이들을 동심의 세계로 이끌 계획이다.



또 어른에게는 눈꽃의 낭만과 어릴 적 추억을 선물하게 된다. 행사장 주변에는 대형 이글루 등 눈 조각전시와 눈꽃나무 식재 등 아름다운 볼거리를 마련했다. 빙벽체험장도 마련돼 박진감 넘치는 겨울 스포츠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

내년 1월11일에는 여성산악인 오은선 대장과 함께 눈꽃이 핀 등산로를 따라 바래봉 정상까지 트레킹하며 설경을 감상할 수 있다. 120m 구간의 눈썰매장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겨울 스포츠의 짜릿함을 느끼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백성기자 bs8787@kr

남원 오미자 재배면적 확대...소득 20억 목표

남원시는 오미자를 전국 최고의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3억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재배면적을 6.5ha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남원지역 오미자의 재배면적은 약 41ha가 될 전망이며, 재배농가에서는 연간 약 20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추가로 조성된 주천·운봉·아염·인월·산내 지역은 해발 300~700m로 오미자가 자라는데 최적의 생육 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곳에서 생산된 오미자는 과육이 단단하고 향이 뛰어나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순창 113개 마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순창군이 쓰레기 종량제 제외 마을을 내년부터 대폭 줄이기로 했다.

24일 군에 따르면 전북 맞춤형 쓰레기종량제 시행 지침에 의거해 현재 농촌 및 산간 30호 미만 마을 가운데 종량제 제외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11개 읍면 113개 마을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내년에는 제외마을 선정 기준을 종전 30호 미만에서 20호 미만으로 바꿔, 기존 제외마을은 113곳에서 55곳으로 대폭 감소될 예정이다.

종량제봉투 사용 확대에 따라 순창 지역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가 기대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주 팔복공단 철길 등 3곳 나무터널 조성

전주시는 24일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경관 제공을 위해 올해 팔복공단 철길 등 3곳에 나무 터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모두 1억5000만원을 투입해 팔복공단 철길, 효자동 따바골4길, 동물원 주차장 등 3곳에 이팝나무 등 6종 42주를 식재하고 큰나무 아래 꽃이 피고 아름다운 조팝나무 등 9010주를

심었다. 팔복공단 철길에는 화려한 조팝나무와 백철쭉 등이 식재돼 아름다움을 더했고, 효자동 따바골4길은 주택가에 둘러싸인 도로로 쓰레기차로 덮여 방치된 화단을 주민들에게 친숙한 산수유와 남천, 자사송 등으로 꾸몄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정읍 대학생 대상 동계 아르바이트 실시

정읍시는 24일 "대학생 일자리 창출과 사회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2014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90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명과 일반인 자녀 60명을 나눠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2013년 12월 1일 이전

에 부모 또는 본인이 정읍시에 주소 두고 있고,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 방송통신대학생, 사이버대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